

손흥민, 우상을 넘다



손흥민이 22일 영국 맨체스터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맨체스터 시티(맨시티)와 원정경기에서 1-2로 뒤진 후반 32분에 시즌 9호 골이자 리그 8호 골을 터트린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EPL 맨시티전 동점골 ‘시즌 9호’…박지성 기록 경신

“내가 어렸을 때, 박지성의 엄청난 팬이었다. 박지성을 보면서 컸다. 그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의 공격수 손흥민(25)이 작년 4월 박지성(36·은퇴)의 소속팀이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와의 일전을 앞두고 밝힌 내용이다.

손흥민은 박지성을 롤모델 삼아 성장한 ‘박지성 키즈’다. 11살 차이인 축구 대선배를 보면서 꿈을 기운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 자신의 ‘우상’인 박지성의 각종 기록을 갈아치우며 새로운 역사를 써

가고 있다.

손흥민은 작년 9월28일 모스크바(러시아)와 2016-2017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경기에서 결승골을 터뜨리며 개인통산 여섯 골로 박지성이 갖고 있던 한국인 챔스 최다골(5골) 기록을 경신했다. 박지성이 PSV 에인트호번(네덜란드) 시절인 2004-2005시즌 2골을 넣은 뒤 맨유에서 매 시즌 1골씩을 추가하며 작성한 기록을 뛰어넘은 것이다.

손흥민은 챔스 한국인 최다골 기록을

달성했던 9월에는 여세를 몰아 아시아 선수 최초로 EPL ‘이달의 선수’로 선정됐다. 9월 한 달간 EPL 3경기에서 4골 1도움을 기록한 맹활약한 걸 인정받은 것이다. 박지성도 선수 시절 해내지 못했던 일이다.

이번에는 또 다른 기록으로 박지성을 추월했다.

손흥민은 22일 맨체스터 시티와 정규리그 22라운드 경기에서 1-2로 뒤진 후반 32분 동점골을 터뜨리며 시즌 9호골로 박지성과 기성용(28·스완지 시티)이 보유 중이던 한국인 프리미어리그 시즌 최다골(8골)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손흥민은 1-2로 뒤진 후반 32분 페널티 지역 중앙에서 해리 케인의 힐 패스를 받

아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9호골이자 리그 7호골을 터뜨렸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동점골에 힘입어 맨시티와 2-2 무승부를 이뤄 승점 1점을 챙겼다.

시즌 9호골은 역대 한국인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골 신기록이다. 손흥민은 박지성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던 2014-2015시즌 기록한 시즌 8골(정규리그 5골)과 기성용(스완지 시티)이 2010-2011시즌 작성한 시즌 8골(정규리그 8골) 기록을 넘어섰다.

리그 7호골을 수확한 손흥민은 또 기성용이 보유한 아시아선수 정규리그 최다골 기록인 8골에도 한 골 차로 다가섰다.

손흥민의 다음 도전은 아시아 선수 프리

미어리그 최다골 사냥이다. 현재 정규리그 7골을 기록 중인 손흥민은 22라운드만 치른 상황에서 기성용이 보유한 아시아인 리그 최다골(8골)에 한 골 차로 다가섰다.

EPL 데뷔 첫해였던 지난 시즌 자신이 작성했던 정규리그 4골을 일찌감치 넘어선 손흥민의 기록 행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한편 손흥민은 이날 경기 후 토트넘 페이스북에 올라온 인터뷰를 통해서 “믿을 수 없다”며 “항상 골을 넣는 것은 특별한 순간이다. 맨시티전에서 팀이 1-2로 뒤진 상황에서 2-2 동점골을 넣은 만큼 정말 특별하다. 특별한 기억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연합뉴스

루니, 전설을 넘다

스토크시티전 후반 추가시간 극적 동점골

맨유 통산 250골…보비 찰턴 기록 넘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의 공격수 웨인 루니(32)가 팀 내 처음으로 개인통산 250골 금자탑을 쌓았다.

루니는 22일 잉글랜드 브리타니아 스타디움에서 열린 스토크시티와 원정경기에서 0-1로 뒤진 후반 추가시간에 천금 같은 동점 골을 넣었다.

이날 맨유는 전반 19분 후반 마타가 자책골을 기록해 0-1로 끌려갔다. 빗장을 단단히 잠근 스토크시티에 밀려 패색이 짙었다. 이 때, 루니가 나섰다. 그는 후반 23분 마타를 대신해 그라운드를 밟았다. 그리고 경기 종료 직전 페널티 지역 왼쪽 프리킥을 오른발로 직접 차 넣어 극적으로 무승부를 만들었다.

그는 546경기에서 250골을 넣어 보비 찰턴이 1972-1973시즌에 세웠던 맨유 역대 개인 통산 최다 골 기록(249골)을 넘었다.

루니는 올 시즌 힘겨운 일이 많았다. 떨어진 기량 탓에 팀 내에선 교체 선수로 출전하는 날이 많았고, 지난 8월엔 러시아 월

드컵까지 뛰고 국가대표에서 은퇴한다고 발표했지만 조롱 섞인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지난 11월엔 만취한 사진이 미디어를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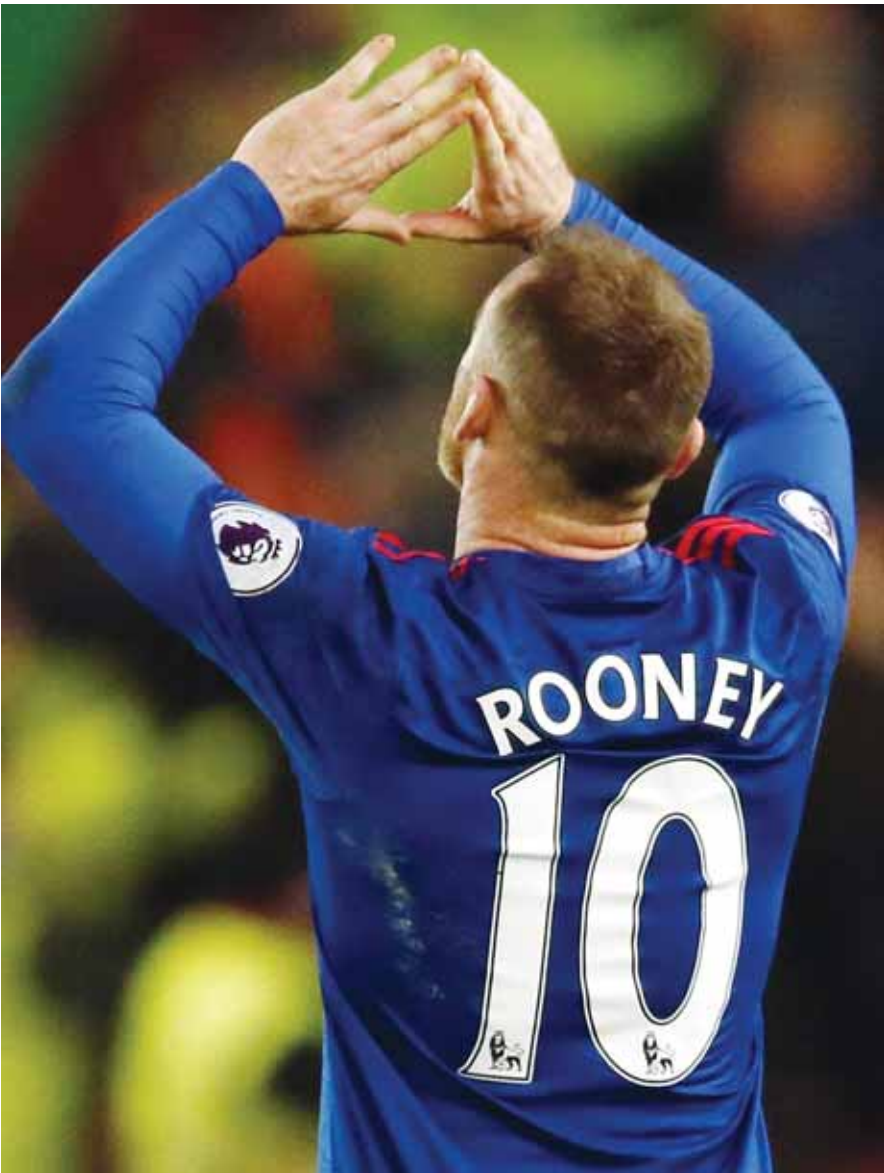
그러나 루니는 험난한 가시밭길 속에서도 250득점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잉글랜드 축구의 전설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경기 후 “매우 영광스럽고 자랑스럽다”며 “이 기록은 오늘 세운 것이 아니라 첫 골을 기록했을 때부터 이어온 것”이라고 자평했다.

보비 찰턴은 “솔직히 내 기록이 깨져 아쉽긴 하지만, 루니가 기록을 세워 기쁘다”며 “그는 역사에 이름을 올릴 자격이 있는 선수”라고 말했다.

조제 모리뉴 맨유 감독은 “루니가 맨유의 역사를 썼다. 그러나 그 역사를 주머니 속에 잘 넣어두고 앞으로도 평소와 다름없이 팀을 위해 골을 넣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맨유는 이날 무승부로 17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갔다.

/연합뉴스



루니(맨유)가 22일 잉글랜드 브리타니아 스타디움에서 열린 스토크시티와 원정경기에서 0-1로 뒤진 후반 추가시간에 동점 골을 넣은 뒤 세리머니하고 있다.

/연합뉴스

눈물의 복귀전

‘비행기 참사’ 사페코엔시

2개월만에 친선경기 가져

비행기 추락사고로 동료들을 떠나보낸 브라질 프로축구 사페코엔시의 생존 선수들이 팀의 복귀경기에서 눈물을 보였다.

사페코엔시는 22일 브라질 명문클럽 파우메이라스와 친선 경기를 가졌다.

지난해 11월 코파 수다메리카나 결승전이 치러지는 콜롬비아로 이동하던 사페코엔시가 비행기 추락사고를 당해 탑승한 19명의 선수 중 3명만이 생존한 지 약 2개월 만이었다. 당시 결승전 상대였던 아틀레티코 나시오날(콜롬비아)의 양보로 사페코엔시는 코파 수다메리카나 우승컵을 받았다.

참사 후 2개월 만에 22명의 선수로 재편된 팀은 이번 친선경기를 통해 그라운드 에 복귀했다. 이날 2만2000명의 관중이 가득 찬 경기장에는 참사 생존 선수인 수비수 힐리오 네토와 알랑 루스켈, 그리고 이번 사고로 다리를 절단한 골키퍼인 잭슨 폴만이 등장했다.

이들은 경기 전 메달과 함께 코파 수다메리카나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참사 생존자인 라디오 리포터 하파엘 헨절도 이날 경기를 중계해 의미를 더했다. 사페코엔시는 이날 2-2로 무승부를 기록하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연합뉴스

한국 여자축구대표팀

갑갑하다

아시안컵 예선 北과 한 조 4경기 모두 평양서 치러야

‘난적’ 북한과 원정경기를 치르게 된 한국 여자 축구대표팀 윤덕여 감독이 철저한 준비로 승리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한국 여자 축구대표팀은 21일 요르단 암만에서 열린 2018 여자 아시안컵 예선 조추첨에서 북한, 우즈베키스탄, 홍콩, 인도와 B조에 편성됐다.

윤덕여 감독은 22일 “원하지 않은 조 편성 결과가 나왔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북한과 역대전적에서 밀리지만, 2015년 월드컵 본선에서도 힘든 상황에서 16강의 성적을 올린 바 있다”며 “북한이 홈 이점을 활용할 경우 어려운 경기가 되겠지만, 철저히 준비해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조 예선은 북한 평양에서 모두 치러지는 데 한국은 오는 4월 5일 인도, 7일 북한, 9일 홍콩, 11일 우즈베키스탄과 차례로 예선전을 치른다.

한국은 북한과 여자축구 역대전적에서 1승2무14패로 절대적인 열세다. 게다가 평양에서 경기가 열려 상당한 부담이 있다.

윤덕여 감독은 “1990년 남북통일축구를 하러 평양에 방문한 적이 있다”며 “당시 1-2로 졌지만, 선수단과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겠다”고 말했다.

여자대표팀의 기동인 지소연(첼시 레이디스)은 “황당하고 갑갑하다”며 “하지만 승심이 없는 건 아니다. 평양에서 승리한다면 새 역사를 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과 올림픽 예선에서도 1-1로 비겼다”고 언급했다.

지소연은 “FIFA랭킹대로 쯤 편성 시드를 배정하지 않은 아시아축구연맹(AFC)이 너무하다”며 아쉬운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연합뉴스

또… 59타

PGA 헤드윈 버디 13개

미국프로골프(PGA)투어에서 2개 대회 연속 ‘꿈의 타수’ 59타가 나왔다.

22일(한국시간) 미국 팜스프링스의 라킨타 골프장(파72)에서 열린 PGA 투어 커리어빌더 챌린지 3라운드에서 애덤 헤드윈(캐나다)은 보기 없이 버디 13개를 잡아내 13언더파 59타를 쳤다.

PGA투어에서 59타 이하 타수를 친 선수는 8명으로 늘었다. 지금까지 PGA 투어에서 59타 기록은 1977년 알 가이버거를 시작으로 칩 벡(1991년), 데이비드 듀발(1999년), 폴 고이도스, 스투어트 애플비(이상 2010년), 퓨릭(2013년) 그리고 지난 13일 저스틴 토머스까지 7명이 작성했다. 퓨릭은 2016년에 58타까지 치면서 50대 타수를 두 차례나 기록했다.

소니오픈 1라운드에서 토머스가 59타를 적어낸 데 이어 2개 대회 연속 59타 기록이다. 헤드윈은 또 1991년 칩 벡(미국)이 세운 1라운드 최다 버디 타이 기록도 세웠다. 파72 코스에서 59타를 친 선수는 알 가이버거, 벡, 그리고 듀발에 이어 헤드윈이 네 번째다.

헤드윈은 하루에 13타를 줄인 덕에 중간합계 17언더파 199타로 단독 선두에 나섰다. 올해 서른살인 헤드윈은 캐나다투어에서 뛰다가 2012년 PGA 2부투어로 건너와 2014년에 2승을 올린 덕에 2015년부터 PGA투어에 합류했다. 하지만 지난 시즌 상금랭킹 85위에 그치는 등 이렇다 할 성적은 없었다.

신인 도미니크 보렐(미국)가 1타 뒤진 2위(16언더파 200타)로 따라붙었고 채드 캠펠(미국) 등 4명이 2타차 3위 그룹에 포진했다.

/연합뉴스